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



태백문화원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

태백문화원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

초판발행 : 단기4327년 12월 30일

재판발행 : 단기4329년 11월 30일

발행인 : 우성조

기획·편집 : 김강산

발행처 : 태백문화원

인쇄처 : 대성문화출판사

전화 651-2121, 651-4354

등록 1993년 8월 20일 제3호

■ 본지는 국비와 지방비 일부보조로 발간함

발 간 사



태백문화원장 우 성 조

태백은 60여년전만해도 인구 일만명이 넘지 않는 한적한 산중마을이었습니다. 대개는 화전농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임산물 채취등으로 약간의 농외 소득을 올릴뿐이었습니다.

산림이 울창하여 일찌기 일제가 목재수탈을 위해 면사무소를 설치 하였지만 엉뚱하게도 태백산속에 무진장 묻혀 있는 석탄이 발견되면서 태백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태백지역의 석탄발견으로 고요하던 산중마을은 10만이 넘는 신도시로 변하였고, 석탄의 힘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난방구조의 개편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푸르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발달된 산업사회로 오는데 밑거름이 된것 입니다.

이렇게 석탄으로 일어선 태백이 이제 그 석탄이 기름과 가스에 자리를 내주면서 석양에 지는 해 처럼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관광도시로 일어서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어려웠던 때와 지나간 자취를 뒤돌아 보는 계기를 만들어 새로운 내일을 위한 의지의 자료로서 "사진으로 보는 태백의 어제와 오늘" 사진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태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사진을 제공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축하 •



태백시장 홍 순 일

향토 사진집〈태백의 어제와 오늘〉 발간을 축하하며...

우리 국토의 모산인 태백산과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를 품에 안은 태백은 우리 나라 석탄 개발의 산지로서 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지난 1930년대 일제치하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우리 태백의 지역 개발사는 우리 나라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무연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부대끼며 살아온 삶의 애환과 편린, 지나온 궤적들이 빛 바랜 사진에 담겨 우리 각자의 사진첩 속에 숨어 있었습니 다.

한 장의 사진은 한 줄의 문장 보다는 더 강한 호소력이 있으며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의 역사가 평탄하지 않아 귀중한 각종 기록 사진들이 세월을 지나며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옛 모습을 알려주는 사진이 얼마 남아 있지도 않고 설사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사진첩 속에 한두장씩 흩어져 있어 사료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태백문화원에서 이러한 사진들을 모아 현재의 모습과 대비한 한 권의 사진 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희망찬 미래로 약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진집이 우리 고장의 역사를 살피는 귀중한 사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0년대 고원의 관광 휴양 도시로 나아가는데 길 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진집을 발간하는데 애써 주신 태백문화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중한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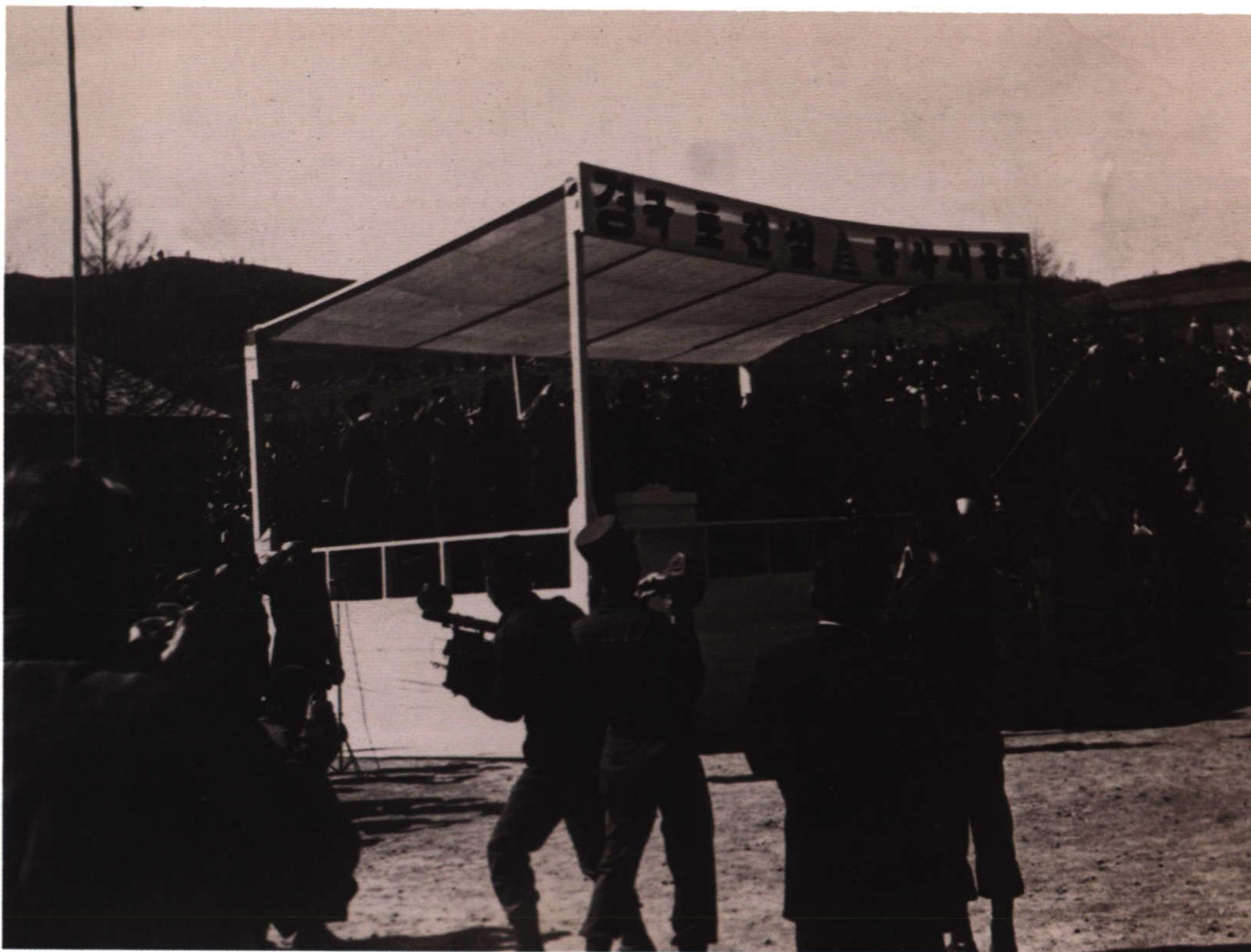


• 사진제공 •
장희열 (황지1동 5-1)

- ▲ 너와집에서 새로 옮긴 황지국민학교 전경.
단기4271년(서기1938년) 사진으로 국민학교에 부설되어 있던 민병대원들 모습.
- ▶ 황지국민학교에서 황지지구 부인회 회원들이 기념촬영.
단기4270년도 이후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인들은 선량한 농촌 부인들까지 동원하였다.



• 사진제공 •
장희열 (황지1동 5-1)



• 사진제공 •
조수환 (황지2동 1-2)



국토건설단.
황지선을 뚫을때 혁명정부
에서 국토건설단을 보내왔다.
황지국민학교에서 국토건설단의
사열모습.

• 사진제공 •
조수환 (황지2동 1-2)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 단기4314년(서기1981)도 황지국민학교에서 북한공산당 화형식 광경.
뒷쪽 언덕위로 KBS방송국 안테나가 보이고 스텔트를 이은 황지국민학교의 단층건물이 지금과는 달리 배치되어 있다.
- ▶ 단기4313년(서기1980년)경 KBS태백방송국 모습.



• 사진제공 •
KBS 태백방송국 (황지1동 82)



▲황지국민학교 KBS방송국. 시청 등이 한눈에 보인다.



• 사진제공 •
장희열 (황지1동 5-1)

◀ 단기4270년대의 상장면 주재소 건물.
일본순사가 상주하며 치안을 하던 곳이다.
그후 장성경찰서 황지 파출소가 있었다.
건물 앞쪽에 보이는 버드나무가 자라서 두 아름쯤 됐는데 건물 주인이 집을 짓기 위해 베려고 하자, 태백시와 그 나무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다.
결국 그나무는 베어지고 말았으니 단기4317년도의 일이다.

▶ 주재소 건물이 있었던 곳.
삼화가스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이 버드나무가 있던 곳이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 황지연못.
옛날엔 천황(天潢)이라 부르던 연못
으로 백두산 천지(天池)못과 쌍둥이
연못이다.

심슬 많고 인색한 황부자의 집터가 연
못으로 변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황지
는 신령한 곳으로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었다.

왼쪽은 단기 4286년경 사진이고 아
랫쪽은 단기 4293년 사진이다.



• 사진제공 •
이준구 (화광동 4-2)



• 사진제공 •
이준구 (화광동 4-2)



• 사진제공 •
우성조 (문곡동 27)



• 사진제공 •
조장길 (철암1동 4-5)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물이라도 마시고 갈
만큼 고요하고 신비한 황지.
연못가엔 나무도 많고 연못속엔 황부자집의
대들보며 기둥이 잠겨 있었다.
철암, 장성사람들이 소풍을 왔고 멀리 경북사
람들이 이 연못을 보려고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지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연못을 망쳐 놓고 말았다.
오른쪽위의 사진은 단기 4290년의 전경이고
왼쪽위는 단기4293년 사진이며 왼쪽아래 사
진은 단기4284년 사진이다.



• 사진제공 •
이준구 (화광동 4-2)

◀ 단기4283년대의 황지연못
양철둥이에 물을 이고 가는
아낙네들이 보이는 곳이
굴뚝소라고 하는 곳이다.
소가 깊어 맑은 물이 솟아
나오기에 식수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도로 밑에 묻혀버렸다.



◀ 이때만 해도 황지연못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신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연못도 지금의 배나 더 컸고
수량도 많았다.

• 사진제공 •

김강산 (황지1동 6-2)

▶ 단기4308년 황지연못전경.
연못 아랫쪽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시절에
는 연못아래 빨래터에서 빨
래를 삶아 주고 돈을 받는것
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
었다. 시냇물이 온통 검어서
연못에서 나오는 맑은 물은
그야말로 생명수였다. 오른
쪽에 상수도 취수장 건물이
보인다.

• 사진제공 •

조수환 (황지2동 266-82)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단기4318년도 황지연못 전경.
시상수도 사업소에서 매일 5천톤의 물을 취수하여
각 가정으로 보냈으니 전국에서 지하수를 먹고
사는 시민은 태백시민 밖에 없었다.



◀겨울철 물이 모자랄때는 직접
연못물을 길어다 먹기도 했다.

• 사진제공 •
이석필(상장주공 A6-206)





• 사진제공 •
강창규 (황지1동 7-1)

◀ 단기4298년 (서기1965년) 경의 농협앞 삼거리에서 태백역쪽으로 바라본 거리풍경. 나무전봇대가 보이고 수해로 거리가 물바다이다.



◀ 농협앞 삼거리에서 산업전사 위령탑쪽으로 바라본 거리 풍경. 불어난 하천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이다.

• 사진제공 •
강창규 (황지1동 7-1)

- ▶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된 현재의 모습. 첫마을책방 자리의 기와집은 3층건물로 바뀌었고 삼거리 부근은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 ▶ 시장쪽도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상권의 중심이 된다.



• 사진제공 •
강창규 (황지1동 7-1)

- ▶ 산업전사 유령탑 아래의 하천물이 불어나 제방이 무너지고 가옥이 침수되었다.
멀리 황지여자중학교가 보인다.
산업전사 위령탑으로 가는 다리는 물에 잠겼다.(단기4298년)



- ▶ 황지자유시장쪽 하천이 수해로 물이 불어 났다.
(단기4298년)



• 사진제공 •
강창규 (황지1동 7-1)



우회도로도 없고 자유시장 집들이 하천까지 지어 졌었는데 지금은 그 집들이 헐리고 시원스런 4차선 도로가 뚫렸으며 그 옆에 하천을 일부 복개하여 풍물시장을 지어 노점상들을 이주케 했다.



• 사진제공 •
이석필(상장주공 A6-206)



▲태백시청 개청당시의 태백시 모습.
아직 우회도로도 없었고 멀리
아래쪽으로 비행장도 보인다.





▲깨끗이 정비된 황지시가지 황지천을 따라 4차선 우회도로가
생기고 황지3동과 상장동에 이르는 철길옆으로 2차선
포장도로가 생겨서 차량소통이 원활해 졌다.



• 사진제공 •
이석필 (상장주공 A6-206)

▲ 단기4310년대 초의 상장동 모습.
황지국민학교 아래에 비행장이 보인다.
국민학교는 신축중에 있고 오른쪽 교사는 단층건물이다.

• 사진제공 •
김동해 (화전2동)



▶ 단기4300년대에 황지국민학교 아래에 있던 비행장에서 군인들의 훈련 모습. 지금은 이곳에 제2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비행장이 있던 자리에는 제2주공아파트가 들어섰고 황지국민학교 아래쪽에 있던 황지광업소 사택자리에는 스포츠 센터가 들어서고 길 건너 도로사업소 앞에는 태백전신전화국 건물이 들어서 있다. 홀다리골과 물골 사이의 언덕에는 시청건물이 서고 그아래쪽에는 시청공무원 아파트가 산뜻한 모습으로 서 있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단기4305년대의 황지시내 전경.
산업전사 위령탑이 세워진지
얼마않되는 시기로 황지여자
상업고등학교 부지 부근엔
아무것도 없다.



• 사진제공 •
강창규 (황지1동 7-1)

▲황지읍시절의 황지 시가지 모습. 도로에는 시멘트 포장을
했고 곳곳에 석탄이 떨어져 길바닥이 검다.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 사진제공 •
이석필 (상장주공 A6-206)



30

▲ 올림픽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 옛날 황지우체국 자리 그 옆에 복권파는 간이건물이 보인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244-3)





- ▲ 황지우체국 건물은 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태백우체국으로 옮겨가고 그 건물은 민간에세 임대 되었다가 그 건물은 헐고 다시 신축하여 황지동 우체국으로 개설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복권파는 간이건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태백시 승격 경축시가행진이 벌어지고 있는 황지1동 농협앞
3거리 이때만 해도 시가지의 건물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 보산당자리에 4층 건물이 들어서고 거리가 산뜻해졌다.



▼ 태백시 승격기념 경축시가 행진에 나온 학생들, 앞쪽에 예쁜 숙녀들은 황지중학교의 남학생이 분장한 모습이다.



• 사진제공 •
강창규 (황지1동 7-1)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송이재의 옛 모습
S커브가 많은 사고 다발지역이었으나
송이재 확장공사로 고개를 20여m나
낮추며 직선화를 하여 4차선 도로가
되었다.

34



◀ 고개마루를 절개하여 시원스레
뚫린 송이재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황지중학교로 올라가는 길.
왼쪽에 KBS태백중계소의
안테나가 보인다.



▶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방송국도 새로 짓고 오른쪽엔
아파트들도 준비하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태백방송국쪽으로 올라가는 철길 밑 굴다리이다.
차량한대가 겨우 들어가는 굴다리인데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단기4316년 (서기1983년)

36



◀시원하게 뚫린길. 굴다리도
확장하였고 멀리 아파트도 보인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황지3동 사무소와 성심의원쪽으로 가는도로의 모습. 시 개청 당시의 모습이다. 하수도 청소를 하려고 뚜껑을 열고 찌꺼기를 퍼내면 모두가 시커먼 곤죽이된 석탄들이 나온다.

37



▶ 지금은 넓게 4차선으로 길이 뚫렸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동인의원이 있던 쪽의 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길바닥엔 온통 석탄가루가 널려있다. 그래도 이때만해도 “우리는 산업역군보람에 산다.” 라는 구호가 희망처럼 들리던 때였다.



◀ 시원스럽게 뚫린 도로, 동인의원 자리는 뜯기고 별채였던 자리에 새롭게 단장한 건물이 보인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소도천 하류의 모습으로
아직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을
짓지 않았을때의 모습이다.



▶상장국민학교
상장중학교 함태중학교가 생기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연화산
기슭에 생겼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화전1동의 황지역 저탄장
지금은 모두 철거되어 복토
한뒤 옛모습을 볼수 없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한성광업소 사택과 저탄장모습



▲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태백역두의 저탄장들은 모두 없어지고 검은 흙은 덮어 버리고 풀과 나무를 심었다. 20여억원이나 날린 철골입구의 저탄장터가 사방공사한 모습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상장면 사무소
단기4281년(서기1948년)도
상장면 직원들의 기념사진
현재의 교육청 자리에 있었다.



▲ 상장면 사무소와 장성읍사무소였던 자리에 지금은 태백시교육청
건물이 들어섰다. 부채살 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이 특이하다.



• 사진제공 •
조수환 (황지2동 266-82)

▲ 장성광업소 사무실 부근과 계산동, 공화동, 협심동 일부와 화광동 일부의 상가와 배급소 등이 보이는 단기4288년대 사진이다. 협심동에서 화광동으로 가자면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다.



▲협심동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었섰고 공화동 자리엔 근로복지공사 장성
병원이 들어섰다. 장성극장이 있던 자리는 석탄회관이 새롭게 지어졌다.





▲화광동 1정목이니 3정목이니 8정목이니 하던 목조단층 연립주택들은 사라지고 번듯한 아파트가 그 자리를 메웠다.

• 사진제공 •

이형자 (서울 홍제동)

◀ 화광동 전경 (단기4291년)
멀리 계산동 사택과 석공 본
관건물이 보이고 일제때 지
은 화광동 사택건물이 빼곡
하다.



• 사진제공 •
이형순 (장성동 3-3)



▲장성국민학교 전경
옛날엔 학교옆에 연못이 있었다.
장성병원의 굴뚝이 보이고 석공
본관 건물이 보인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 장성광업소 본관건물
아침조회가 한창이다.
5.16혁명후인지 "마지막
혁명이다. 함께 뭉쳐 건
설하자." 하는 구호가 적
힌 간판도 보인다. 이때
만 해도 모든 관공서, 회
사 등에서는 반공교육과
권위주의적인 훈시, 교육
등이 많았다.

◀ 요즈음엔 본관건물도 신
축했고 주위엔 부속건물
이 많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장성읍사무소 벚꽃이 만개한 장성읍사무소 전경.
지금은 뜯고 교육청이 들어섰다.



◀장성읍개청기념식
단기4293년 (서기1960년) 2월1일
장성읍 승격 기념식이 장성극장에서
있었다.

長省邑開廳式記念 4293.2.1

• 사진제공 •
김시돈 (황지3동 1-3)



▲ 태백중학교
지금의 태백국민학교 자리의 태백중
학교 교정에서 태백출신학도병들의
기념촬영.

• 사진제공 •
우성조 (문곡동27)



◀ 충령비
전사한 태백출신 학도병들의 영령을
위로코자 세운 충령비 태백국민학교
교정에 있었다. 지금 태백중학교 교
정에 있는 충혼탑은 네번째 세운 탑
이다.

• 사진제공 •
장희열 (황지1동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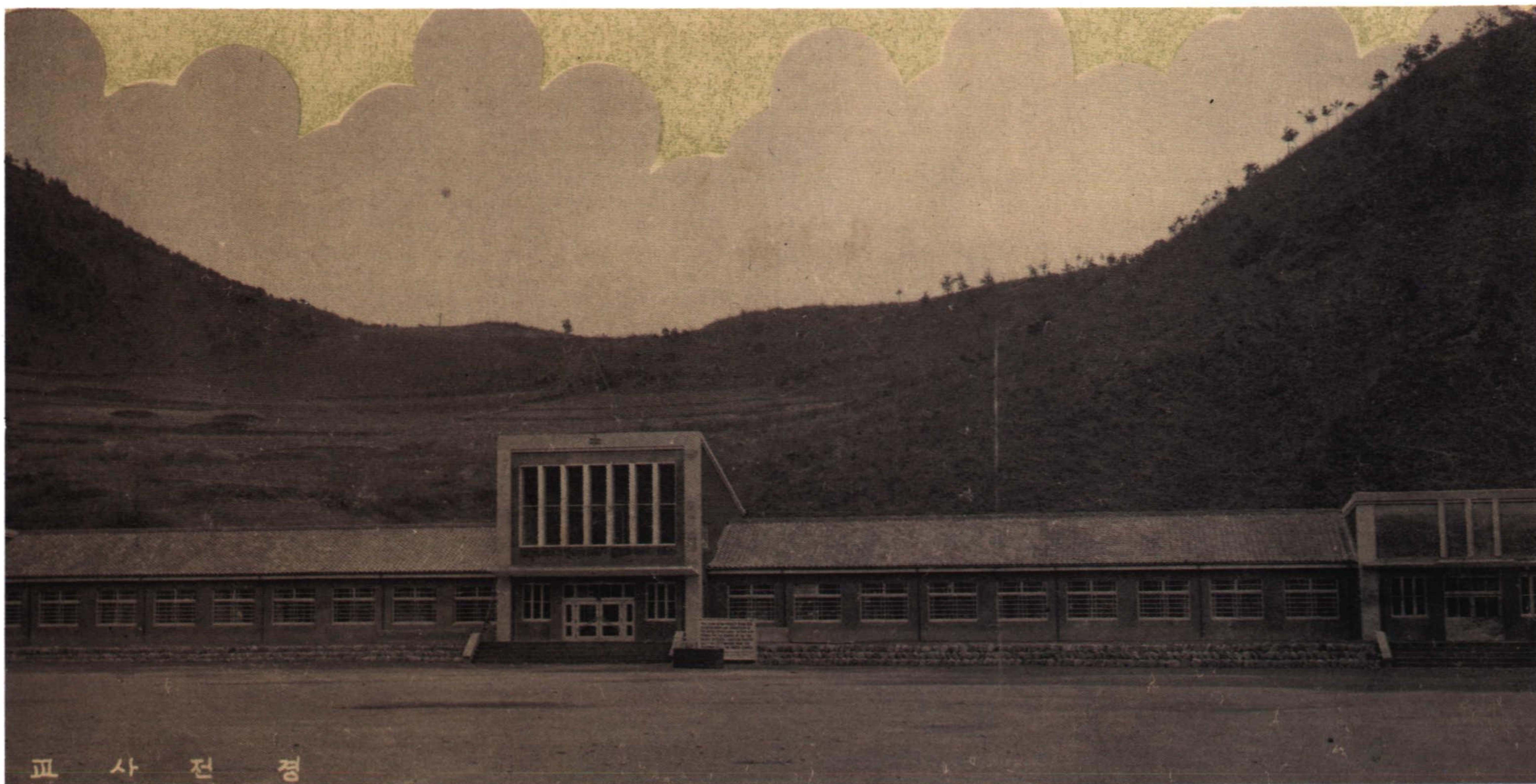
• 사진제공 •
김시돈 (황지3동 1-3)



태백중학교 교정.
현재의 태백국민학교 자리가 예전에 태백중학교 자리였다. 학생들이 사열을 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민병대가 있어서 일반인들도 군인 못지않게 훈련, 교육을 받았다. 뒷쪽의 건물들이 현재의 계산동 아파트 자리이다. 단기4287년 (서기 1954)의 사진이다.



▲일제때 지은 단층연립주택이 헐리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세워졌다. 태백중학교는 하장성 개금둔지로 옮겨가고 지금은 태백국민학교가 되었다.



교사전경

• 사진제공 •
우성조 (문곡동27)



• 사진제공 •
우성조 (문곡동27)

태백중학교 교정
뒷쪽에 보이는 언덕이
삼성국민학교가 들어설 곳이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 사진제공 •
우성조 (문곡동 27)

태백중·고등학교 낙성식.
태백국민학교 자리에 있던 교사를 하장
성으로 옮기며 새로이 짓게 되는데 국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래도 교
실이 모자라 콘서트 건물을 지어 그 안
에서 수업을 했다. 강건너에 너와집들
이 보인다. 장차 이일대에 문화동이 들
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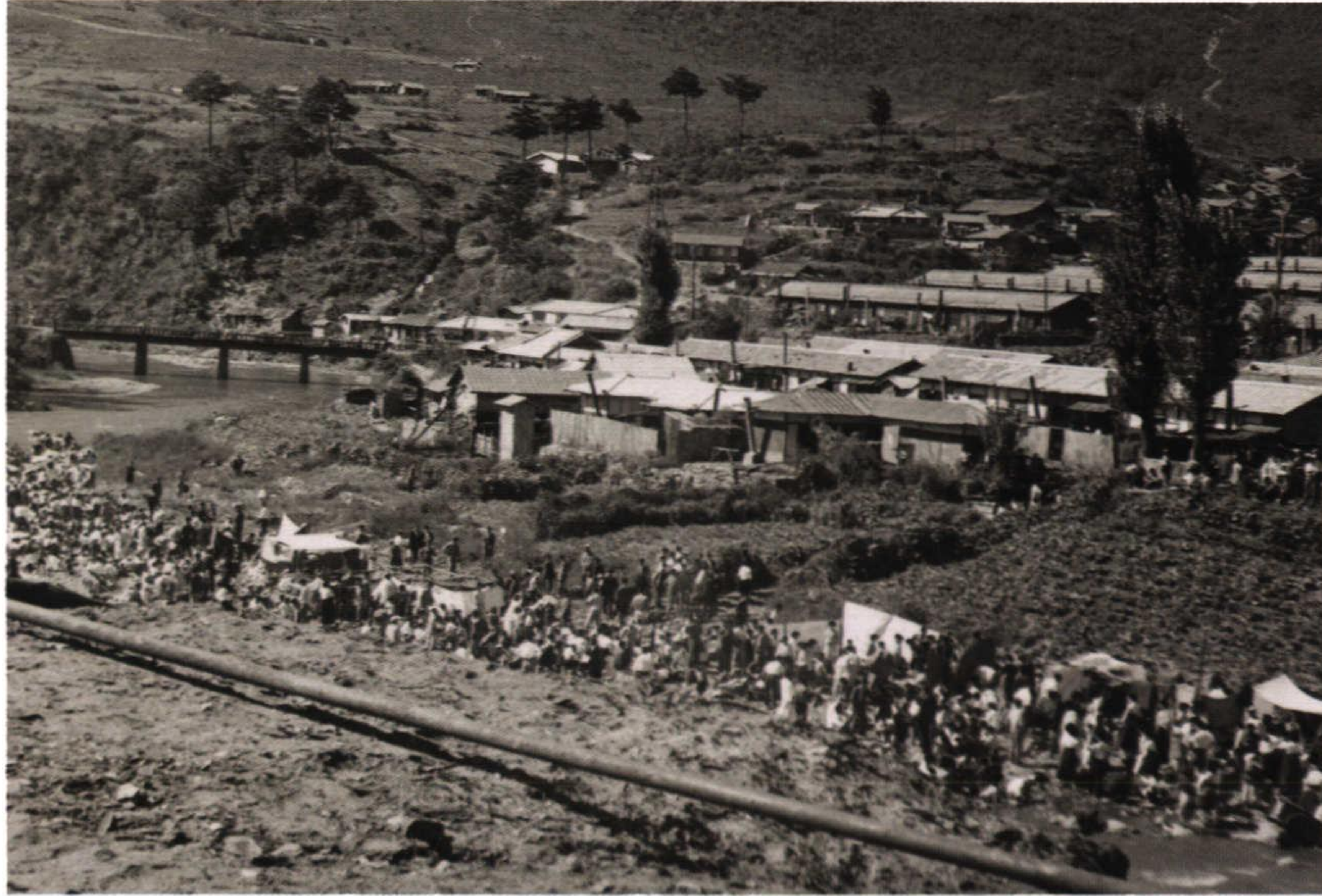




▲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뒤편엔 삼성국민학교가 세워졌고 그 옆으로 평화동 단층연립주택이 보인다. 아랫쪽엔 태백중학교가 분가하였고 너와집이 있던 하천 건너편엔 문화아파트가 들어섰고 도축장이 있던곳엔 경찰아파트가 세워졌다.



▲남은 태백국민학교 건물도 헐고 새롭게 지었고 계산동의
목조단층 연립주택도 헐리고 최신식 아파트가 지어졌다.
학교앞쪽에는 계산동사무소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



태백국민학교 운동회.
 옛날엔 운동회날이면 온 동네가 축제분위기였다. 소머리를 삶아 국
 밥을 만들어 파는 천막장사들이 들어서고 부치개를 지저파는 술집도
 생기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뛰며 하루를 즐겼다. 강가에 늘어선
 국밥집, 술집, 좋은자리를 찾아 앉아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북
 새통을 이룬다.

• 사진제공 •
조미영 (황지대운 A2-506)



• 사진제공 •
이형순 (장성동 3-3)



◀ 장성여자 중학교 초창기 모습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복이 추억을
자아낸다. 이때 학생들은 강가에서
돌을 나르고 땅을 파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 했다.

• 사진제공 •
이형순 (장성동 3-3)





▲장성여중은 개축되고 읍사무소 자리엔 교육청건물이 세워졌고 비와야 폭포 밑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 사진제공 •
김풍환
(서울 마포구 마포동 292-12)

◀단기4293년도 금천12항의 모습.
지금은 나무가 무성하여 옛모습을
찾아 볼수없다.

• 사진제공 •
조수환 (황지2동 266-82)



- ▶ 단기4284년 정초의 장성시내에서 찍은 사진으로 태백이발관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 ▶ 화광동 태백경찰서 앞에 있던 장성의용 소방대 건물의 모습.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장성광업소 수갱 준공식 광경.
뒷쪽으로 보이는 곳이 과수원이 있던
곳이고 오른쪽이 나중에 석공훈련원이
들어서게 되는 곳이다.



• 사진제공 •
조수환 (황지2동 266-82)

◀ 수갱이 있는 아래쪽에
있던 신흥동 사택

- ▶ 과수원 옆엔 석공훈련원이 들어서서 산업전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아래쪽에 있던 상신흥동은 모두 헐려 버렸다.



- ▶ 수갱의 철탑은 새롭게 바뀌고 신흥동사택은 사라졌다.





• 사진제공 •
조미영 (황지대운 A2-506)

◀ 문곡동 편뜰의 새발골 입구
강가에 있던 성황당 모습



▶ 성황당은 간곳없고 편뜰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 244-3)



▶ 협심동에서 호암동으로 건너오는 협심2교의 준공식
뒷쪽에 목욕탕 건물이 보이고
아직도 목조 단층연립주택
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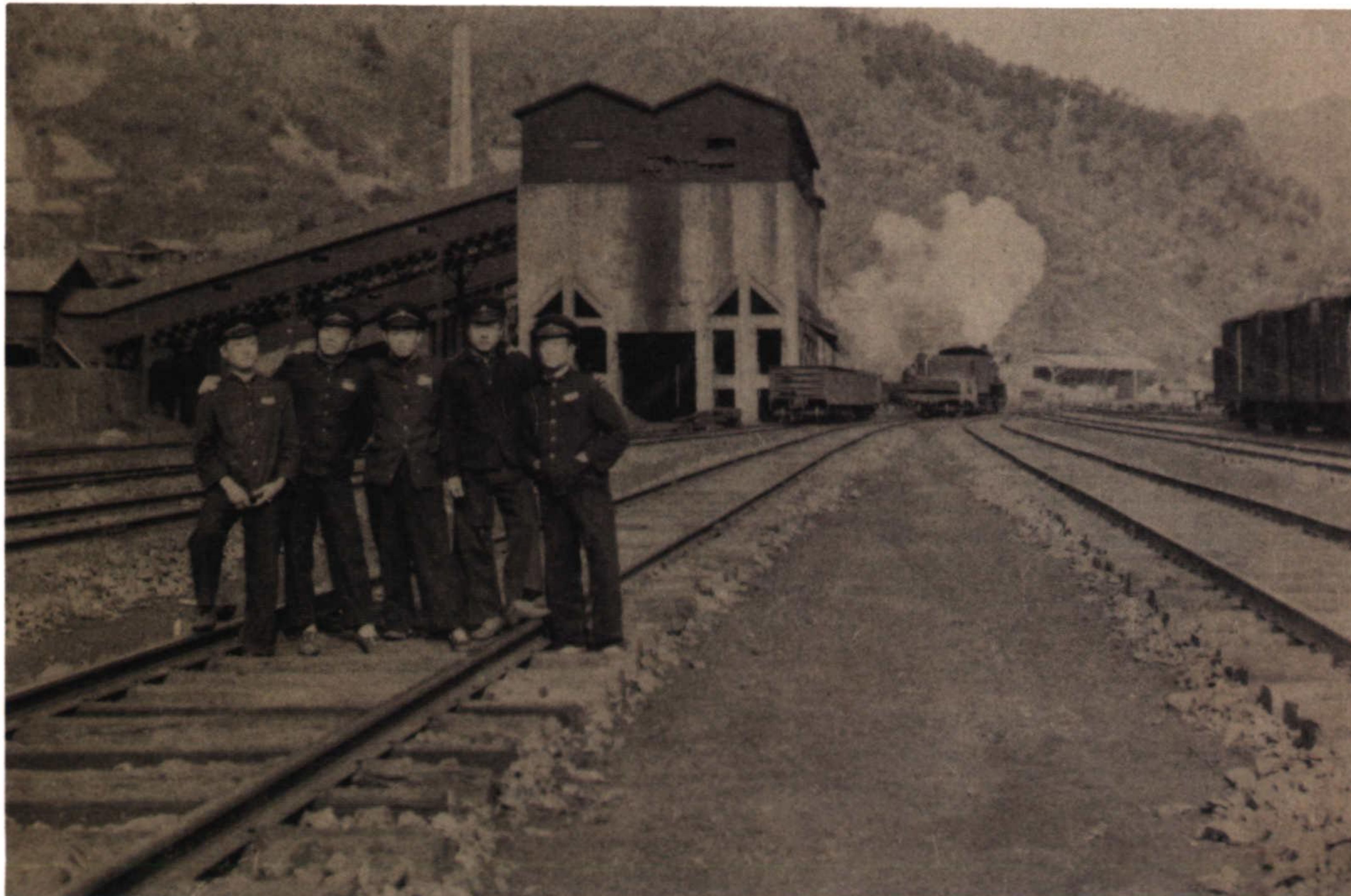


◀ 다리는 그때 그 다리이나
목조 단층연립주택 자리에
멋진 아파트가 들어섰다.

• 사진제공 •
우성조 (문곡동27)



• 사진제공 •
우성조 (문곡동27)



▲ 단기4290년(서기1957)의 철암역 모습. 중기기관차가 석탄을 나르고 있고 국내 최대의 석탄수송기지답게 화차도 많고 건물도 웅장하다. 당시에 태백지역에서 외지로 나가자면 영암선철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장성에서 철암은 새재로걸어다니거나 장성광업소 인차를 타고 장성에서 철암까지 뚫린 2.5km의 굴은지나야 했다. 중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그 소리에 애떨어진 사람도 많다더라.

일제가 지은 선탄장 건물은 그대로 ▶
이나 지금은 증기기관차 대신 디젤
기관차가 석탄을 운반한다.



40여년전 철암역은 산골마을의 ▶
개벽이었다. 지금은 역사도 새로
짓고 석탄폐수를 걸르던 죽탄 침
전지도 사라지고 그 자리엔 집
들이 들어 섰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3-3)



◀ 철암중학교 개교식 광경



◀ 스레트 지붕에 초라한 단층 건물이던 학교가 번듯하게 지어져 있다. 아래쪽에는 철암국민학교가 보인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2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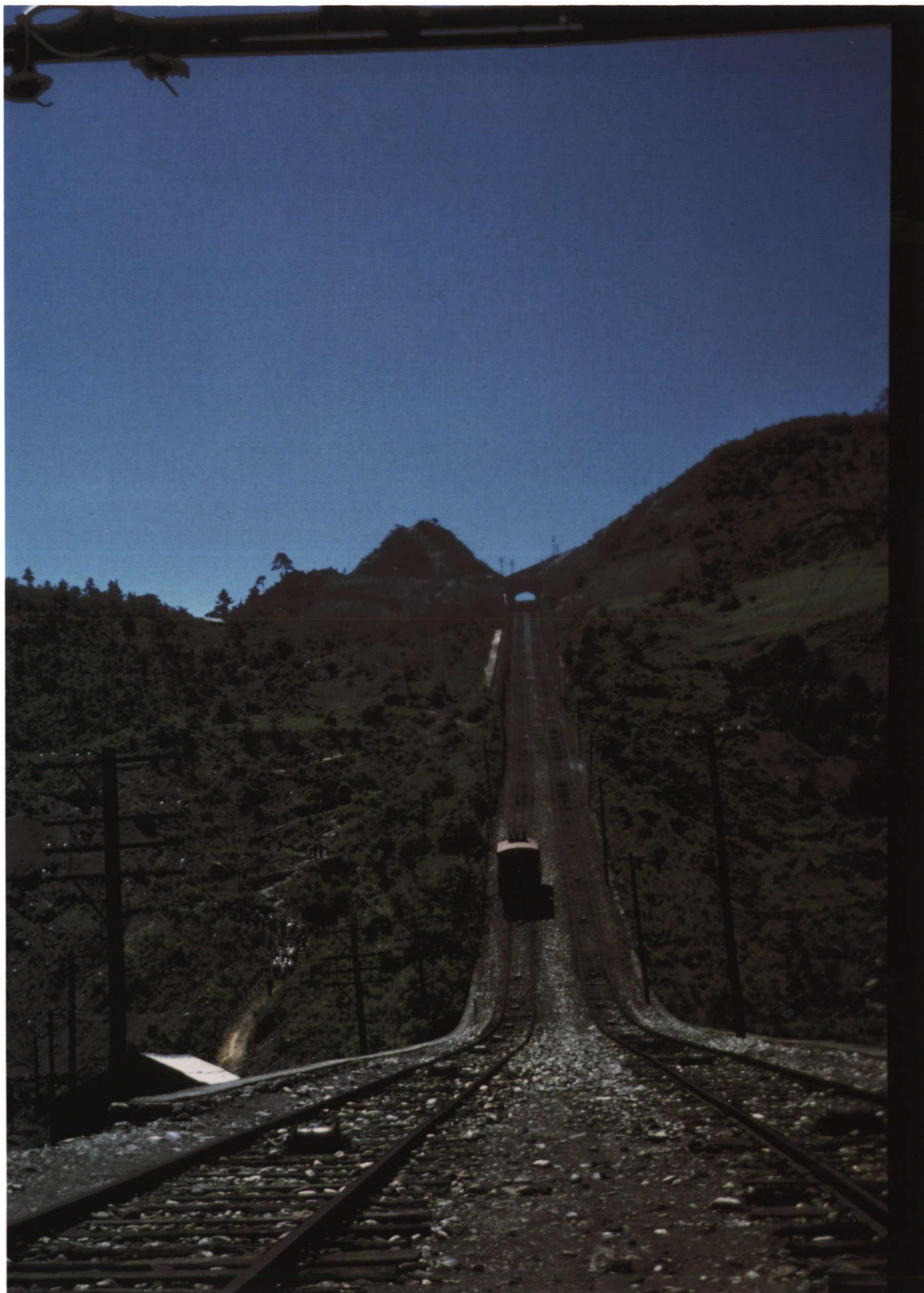
▶ 철암역 아래 상가 신축공사현장이다. 원래 이곳은 장성광업소의 사택들이 있던곳이었다.



71

▶ 지금은 깨끗하게 단장된 상가가 지어져 상권의 중심이 되었다.





• 사진제공 •

김풍환 (서울마포구 마포동 292-12)

◀ 심포리에서 쳐다본 강색철도의 모습
화차는 쇠줄로 끌어 올리거나 내렸고
승객들은 걸어서 오르내렸다. 철길
왼쪽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새끼줄
장수들이 신이 났고 지게꾼들이 짐과
사람을 저다 날랐다. 험준한 태백산
맥을 철마가 넘지를 못하고 꼬리만
떼어 쇠줄로 끌어 내리고 올리고 하
던것을 단기4295년에 지금의 ㄴ자
로 돌아 올라가는 방법으로 영동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한도 많고 사연도
많던 강색철도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
라지고 말았다.



▲ 강색철도가 사라진지 30여년 그 철길 부근에 여러개의 군소 탄광이 생기면서 파낸 폐석더미 때문에 철길의 흔적은 없어지고 아래쪽에 조금남은 철길터가 그때의 강색 철도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풍환
(서울마포구 마포동292-12)

▲통리에서 심포리까지 놓인 강색철도의 모습.
1.1km나 되는 이 철길에 쇠줄로 열차를 끌어
올리고 내렸다. 통리에서 내려다본 사진.
(단기4288년 사진)



▲ 통리에서 내려다 본 강색철도(인크라인) 터의 모습.
지금은 무너진 콘크리트 옹벽만 일부 보일뿐 그러한 철
길이 있었는지 조차 까마득 하다.



◀ 서울에서 통리까지온 열차는 꼬리를 떼어 쇠줄로 심포리까지 끌어 내리던 강색 철도를 폐지하고, ㄷ자식 돌아 내려가기 방식으로 영동선 완전개통식날 재건국민회의 박정희 의장이 참석하여 개통을 의미하는 금못을 철길에 박았다.
(통리역구내에서 북쪽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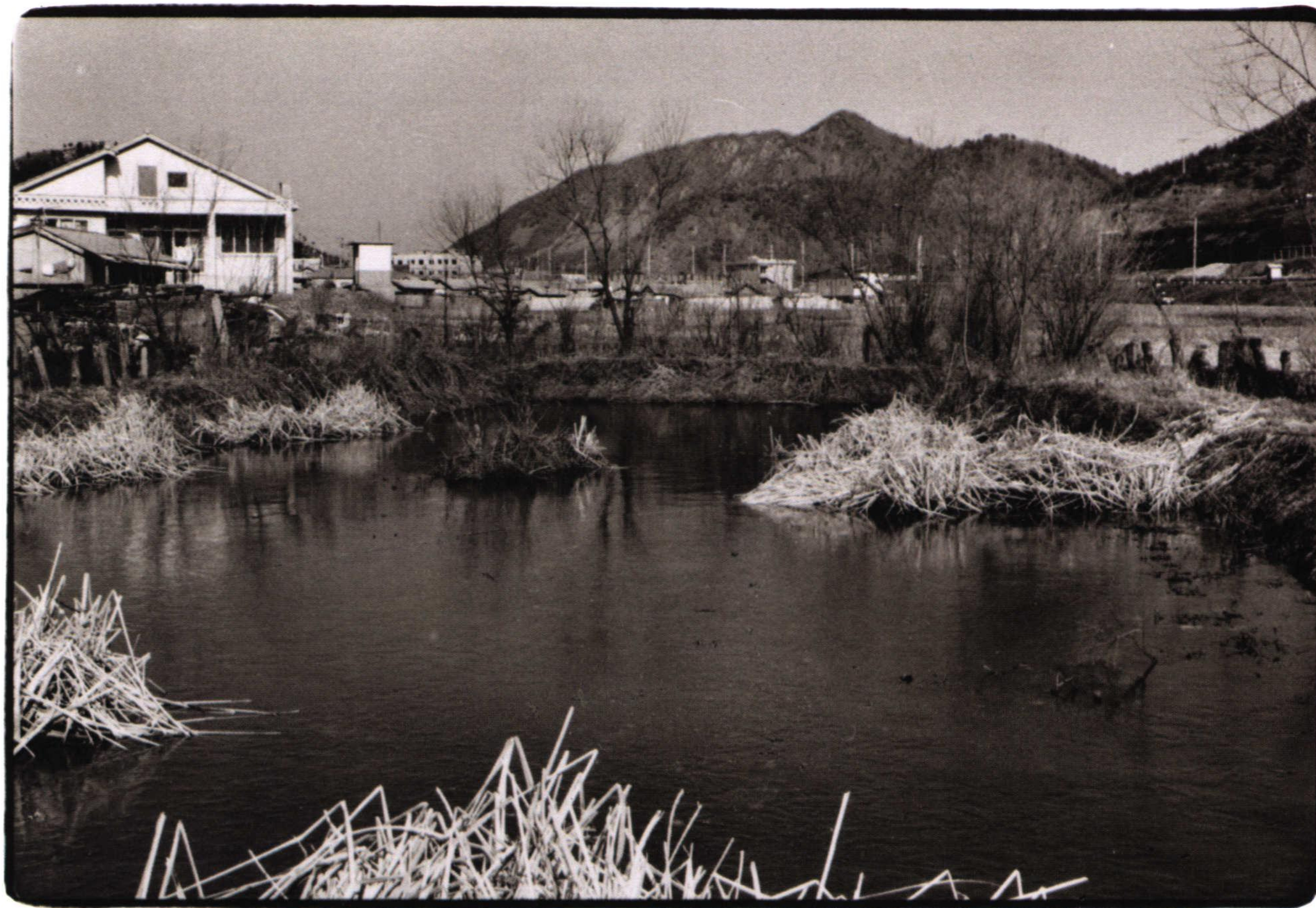
• 사진제공 •
김풍환 (서울마포구 마포동 292-12)

▲ 영동선 완전 개통식 광경



• 사진제공 •
김풍환 (서울마포구 마포동 292-12)

▲ 황지선 개통 광경.
AID차관으로 개통
으로 태극기와 성
조기 유엔기가 함
께 펼쳐진다.



• 사진제공 •
이석필 (상장주공 A6-206)



▲ 통리의 원심 전경. 낙동강5대 발원지의 하나
였던 이곳 원심은 시집가던 신부가 가마를 매
고 가던 가마꾼과 함께 가마째 빠져 흔적도
없이 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깊은
연못이었으나 지금은 메워 경동탄광의 사택
이 들어서 있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3-3)



• 사진제공 •
김강산(황지1동6-2)



◀ 동점구문소 앞의 나무다리.
단기 4288년도 때에만 해도
구문소 앞에는 나무난간의
나무다리가 있었고 그리로
자동차가 다녔다. 10년후쯤
나무를 걷어 내고 시멘트로
상판을 만들었다.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3-3)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3-3)



◀ 구문소 인공석굴의 모습
차량1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으나 지금은
조금 더 넓혔다.

▶ 동점동 구문소의 통소위에 가설된
철제구름다리. 단기4295년(서기
1962년)경에 신아일보 장성지국
의 설두로 만들어진 이 다리는 구
문소의 명물이었으나 어느해 장마
때 떠내려갔다.



◀ 지금은 구문소 앞에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놓이고 구문소 위에는 자개
루(子開樓)가 건립되어 태백의 관
문으로 위용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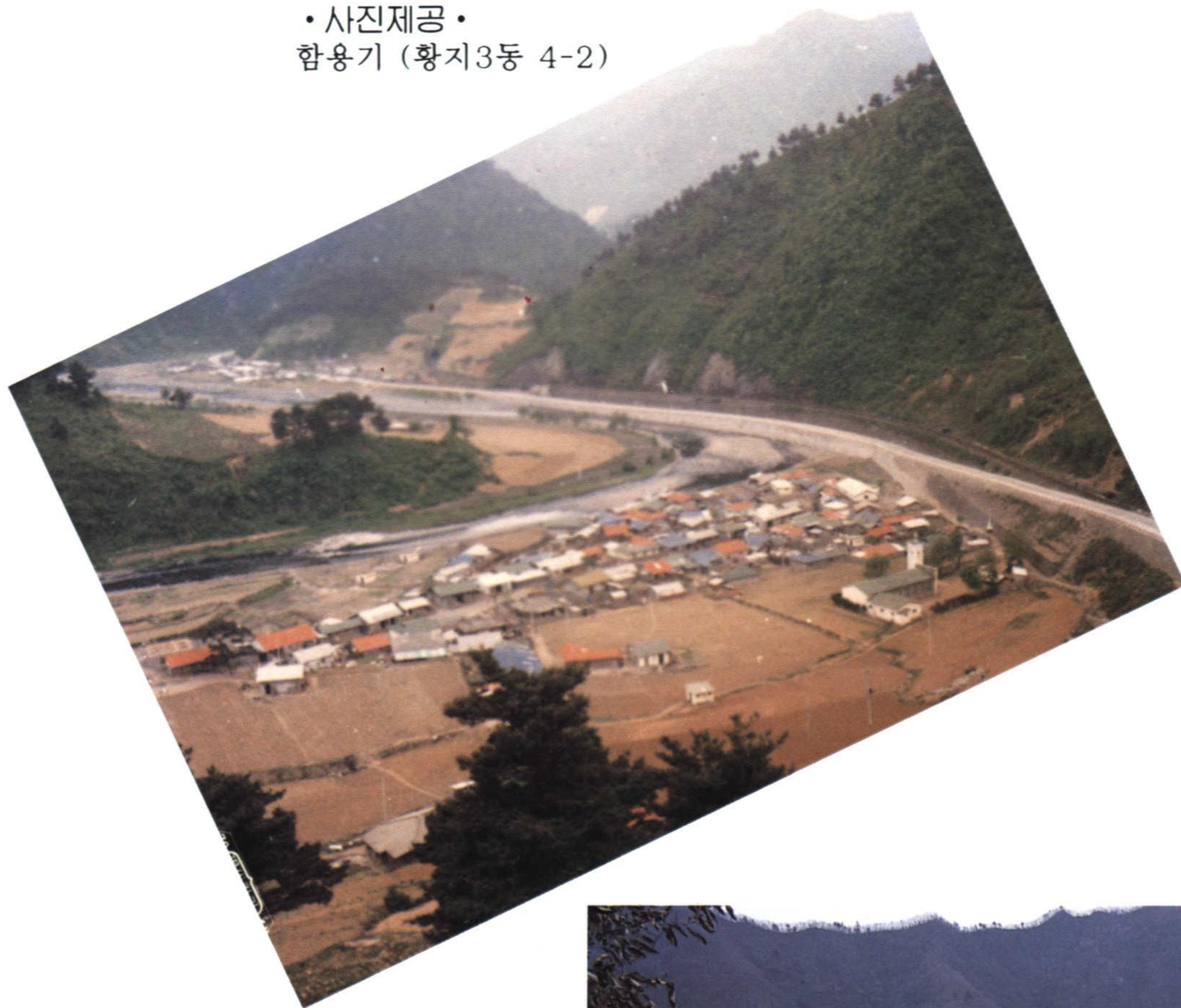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 사진제공 •
이희준 (장성동 3-3)

모심기 광경.
단기4303년(1970년)대초까지 만해도
장성의 메밀뜨리와 동점의 사근다리에서
는 벼농사를 지었다. 모내기 철이 되면
식량증산을 독려하는 기관장 유지들이
모내기 일손을 거들었다. 위는 메밀단지이
고 아래는 사근다리 늪고개 부근이다.



• 사진제공 •
함용기 (황지3동 4-2)



◀ 동점국민학교 앞 나팔고개
아래의 마을 전경.
멀리 천천소주 공장이 있
던 건물이 보이고 병밀에
는 아파트도 없고 나팔고
개아래의 국민주택도 없던
때다. 단기4312년(서기
1979년)도 사진이다.

▶ 지금은 천천소주공장 터에
동점동사무소가 들어섰고
병밀에는 아파트가 나팔고
개 아래에는 국민주택이 들
어서 있다. 철길과 도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 사진제공 •
이석필 (상장주공 A6-206)

▲ 동점동 돌구지에 있던 강원탄광 사택모습.
강원탄광의 이 사택들은 당시에 가장 문화시설이 잘 된
집으로 1동에 2가구가 살도록 지어졌으며 가구마다 위생
적인 화장실이 딸려 있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건축구조 였다.



• 사진제공 •
김강산 (황지1동 6-2)



▲ 500가구가 넘던 돌구지.
강원탄광사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고의 문화시설·복지정책으로 다른
민영탄광과 국영탄광까지 부러움을 샀
던 강원탄광, 광부들의 파업·성완희
사건·석탄산업 합리화 등으로 사연도
많고 일화도 많은 거대 민영탄광은 우
리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 간다.

◀ 돌구지 강원탄광사택에서 철암쪽으로
건너오는 나무다리. 다리 건너편에는
강원탄광 부속병원이 있었다.

• 사진제공 •
이준구 (화광동 4-2)



◀ 단기4286년(서기1953)도의 태백산
천제단 모습. 지금과는 매우 달라 보인다.



• 사진제공 •
정기복 (상장동244-3)

▶ 백산동 황철배기의 전경 한때 누가 대학 부지로 내놓겠다고 한 곳이었으나 그가 죽자 그 후손들에 의해 약속이 파기되었다. 지금은 유리온실이 들어서서 태백 농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 유리온실 설치작업이 한창이다.



• 사진제공 •
성공회문곡교회 (상장동1-3)

◀ 혈리국민학교 부근
굴어구 전경

◀ 매봉산 개간 사업에
동원 된 사람들



• 사진제공 •
성공회문곡교회 (상장동1-3)

• 사진제공 •
대한성공회 (상장동)



- ▲ 상장동 문곡역 앞쪽의 전경.
지금은 모두 집이 들어서 있다.
- ▶ 혈리 굴어구 근방의 길가집들,
너와 집 앞에 선 동네 아낙들이
성공회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 •
대한성공회 (상장동)

■ 기획 · 편집자의 말

나름대로 태백에 오래 살았다고 자부해온 터이지만 막상 옛 기록을 찾아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왜이리도 기록에 인색하고 기록자체에 대해 무지했는지 자책하게된다.

태백의 옛모습을 찾는데도 애로가 많았다.
토박이는 적고 유동인구는 많으니, 기록인들 온전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의 풍경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 해야겠다. 그것이 훗날 중요한 역사가 된다는 인식을 해야하고, 기록하는 민족만이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 남게 된다는 것을 고금의 역사가 전하는 바이니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이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사진을 제공해주신 장희열교육위원, 이준구시의원, 강창규씨, 조수환씨, 정기복씨, 그리고, 고인이 되신 이희준읍장, 조장길씨, 멀리 서울에서 귀중한 자료를 보내준 김풍환씨. 그밖에 도움준 모든이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사진 촬영에는 이석필씨가 애쓴것도 함께 밝힌다.

기획 · 편집 김 강 산

태백문화원 임원 명단

임원

직 위	이 름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자 택	직 장	
고문이사	황운덕	장성동 1-5	81-6648		
고문이사	장인원	황지 3-2-1 자혜의원		52-2795	
원 장	우성조	문곡동 27번지	81-2714	53-3161	
부 원 장	박광옥	황지1동 태백농협	52-1125	53-3830	
이 사	이용익	화광동 1-1 장성한의원		81-6424	
"	하일호	황지1-11-2 경희한의원		52-2525	
"	전영호	계산동 198-2 한일기업	52-8522	81-3314	
"	황광현	황지 1-2-1 강원이동통신		52-5015	
"	정원교	금천 8-2		81-7740	
"	천명란	황지1동 태백축협		53-4000	
"	황영흠	황지1동 주류합동			
"	도한봉	상장동 황지고등학교		53-6631	
"	김해운	황지 1-11-2 문성사	52-2217	52-2318	

사무국장	김강산	황지1동 6통 2반	52-9175	53-3161	
간 사	이명숙	문곡동 시영APT 106-105	81-3966	53-3161	

운영위원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김 윤 대	태백시 황지동 172-2	52-5300	
남 주 수	태백시 철암2동 2/1	82-8236	
최 호 진	태백시 황지1동 41-21	52-1248	
유 호 명	태백시 황지1동 대림아파트 205	52-2163	
장 영 창	태백시 황지1동 11/4	52-3641	
정 연 준	태백시 장성동 4/1	81-6544	
하 진 호	태백시 철암동 366-26	81-1255	
홍 성 일	태백시 상장동 15/1	52-2162	
김 금 시	태백시 화광동 협심연립 304	81-2508	
손 창 은	태백시 화광동 4/1	81-6262	
홍 성 덕	태백시 황지1동 62-3	52-2573	
손 봉 식	태백시 장성동 3/1		
이 경 성	태백시 황지1동	53-6688	

후원위원명단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강 국 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APT 1331-103	(02) 645-4700	재경태백총동문회장
고 봉 영	경기도 부천시 남구 괴안동 96-4	(031) 341-1814	캘코연마(주) 사장
고 영 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동현APT 3-406	(02) 275-3610	동부건설(주) 상무이사
김 시 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1동 419-2	(02) 212-7818	진일인쇄 대표
김 재 림	서울시 양천구 신월 7동 시영APT 20-902	(02) 719-2997	황일토건(주) 사장
서 강 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66-246	(02) 821-8742	경안전자(주) 사장
신 동 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3-102	(02) 298-3204	현대칼라(주) 부사장
이 근 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대림APT 7-1208	(02) 868-4455	(주) 남방 영업이사
장 무 부	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주공APT 104-503	(02) 417-5275	재향군인회 운영과장
홍 성 필	서울시 관악구 신림12동 삼천리빌라 4-101	(02) 679-1460	당산동 분식센터 대표
전 춘 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155-36	(02) 603-0526	진우전기 사장
홍 영 치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562)220-0465	포항제철전문교육부장
우 용 택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0562)220-0396	품질관리부검사과장
김 창 남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0-2	(0331)213-0188	유성전자(주)사장
송 준 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상APT 3-102	(02) 499-6346	삼표레미콘(주)사장
이 단 화	서울 송파구 송파동 94-11	(02) 451-7551	연화유치원 원장
최 옥 화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0-306	(02) 737-2708	시릿트대표
이 춘 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APT 319-402	(02) 549-2577	국민학교 교감

